

글로벌 사랑 학교와 함께하는 DMZ 투어

Sarah · 2026년 10월 7일

시 요약

하루 동안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경험과 호기심 많은 십대 청소년들을 한데 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DMZ 가이드 투어는 흥미로운 대화와 실제 경험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다.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달 우리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인 글로벌 사랑학교 학생 35명을 한국 비무장지대(DMZ)로 데려갈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과 함께 교사 두 명과 북한 출신 손님 한 명도 동행했다. 첫 번째 정거장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였다. 그곳에서 가이드 데이비드 박사는 북한의 특수성과 실제 생활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학생들은 북한 영토를 바라보며 질문하고 여유롭게 장소를 둘러볼 수 있었다. 새로운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은 북한 출신 손님과 대화에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학생들과 함께 편안하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현지 식당에서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마지막 장소인 강화 함상공원에 도착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전함을 탐험하고 전쟁의 순간들...

하루 동안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경험과 호기심 많은 십대 청소년들을 한데 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DMZ 가이드 투어는 흥미로운 대화와 실제 경험을 통해 북한에 대한 시야를 넓혀준다.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달 우리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인 글로벌 사랑학교 학생 35명을 한국 비무장지대(DMZ)로 데려갈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과 함께 교사 두 명과 북한 출신 손님 한 명도 동행했다.



첫 번째 정거장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였다. 그곳에서 가이드 데이비드 박사는 북한의 특수성과 실제 생활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학생들은 북한 영토를 바라보며 질문하고 여유롭게 장소를 둘러볼 수 있었다.



새로운 생각과 질문을 가지고 학생들은 북한 출신 손님과 대화에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학생들과 함께 편안하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다.



현지 식당에서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마지막 장소인 강화 함상공원에 도착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전함을 탐험하고 전쟁의 순간들과 그 유산에 대해 성찰할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그날의 생각과 소감, 그리고 프로그램의 최종 고려 사항을 공유하는 마지막 대화 시간이 있었다.



이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실제 이야기를 듣고, 역사적 유산을 성찰하며 역사적인 장소를 걷는 직접적인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배우고 의미 있는 대의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참가자들을 계속해서 기대한다!

이 문서는 LinkAsia (linkasia.net) 에서 생성되었습니다.